자천타천 7명 사상 첫 '직선 교육감' 도전

■광주시교육감 입지자

사상 처음 주민의 손으로 뽑는 광주시 교육감을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 16일 현재 자천 타천으로 광주교육을 책임지겠다며 나선 인사만 7명이다.

안순일 현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한 이정재 전 광주교대 총장, 김영수 광주교육발전연구소이사장, 장휘국 광주시교육위원, 탁인석 전 광주대 교수, 윤영월 광주예고 교장, 이종현 무등중 교장 등이 다.

이들 중 이정재 전 총장과 탁인석 전 교수, 김영수 이사장, 장휘국 위원 등 4명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든 상태다.

안 교육감은 공식출마 선언만을 남겨고 있으며, 윤 교장과 이 교장은 아직까지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안 교육감은 "재임 3년동안 이룩한 광주학생의 수능 전국 1위 등 '실력광주'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일단 올 한해 광주교육이 나아가야할 정책을 완료한 뒤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안 교육감은 현재 현직 프리미엄과 재임 시 달성한 수능 전국 1위 등 높은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안 교육감은 오는 3월 이후 지난 선거에서 지지를 보였던 교원 세력 등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경우 타 후보와의 지지도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에 맞선 강력한 라이벌은 2002년 간선제로 진행된 광주시교육감 선거에서 고배의 쓴 잔을 마신 이정재 전 총장이다. 지난 5~9일 실시한 광주일보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까지 현직 안 교육감을 추격하며 상승세에 있다.

이 전 총장은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사무실 개소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든 상태다.

이 전 총장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겠다"며 당선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양강대결 구도 속에 광주시교육청 장학사와 삼도초 교장 등을 역임한 김영수 이사장의 의욕도 남다르다.

김 이사장은 "수능 점수 한가지에 안주해 상위 5%만을 대접하는 광주교육이 변하지 않는다면 광주의 내일도 달라질 게 없다"며 "교육정책과 학습방법을 달리해 감성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시 교육감 후보군 중 가장 먼저 공식 출마를 선언했던 탁 전 교수의 활발한 선거운동도 눈에 띈다.

한국폴리텍대학장 재임 당시 청렴도 1위를 달성하기도 했던 탁 전 교수는 "도덕성이 해이해진 광주의 교육 현장 개선을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분명히 했다.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이 '시민후보'로 추대한 장휘국 위원도 다크호스로 꼽힌다.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이기도 한 장 위원은 경쟁·서열 위주의 'MB 교육' 철폐를 내세우며 세를 모으고 있다. 장 위원은 "우리 교육을 30년 전으로 후퇴시키고 있는 'MB 교육'을 심판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면서 교육복지 균등 지원 등 7대 정책을 제시했다.

윤영월 교장은 현재까진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윤 교장은 "3월 초쯤 예비후보 등록을 할 계획"이라면서 "후보 등록 후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 교육감 선거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이종현 무등중 교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출마의 뜻을 4년 정도 미룰까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교육감 입지자 〈가나다 순〉

김영수(63)	안순일(65)	윤영월(59)	이정재(64)	이종현(60)	장휘국(59)	탁인석(59)
광주 교육발전 연구소장	광주시 교육감	광주예고 교장	전 광주교대 총장	무등중 교장	광주시 교육위원	전 광주대 교수

안순일 교육감 현직 프리미엄에 이정재 오차 범위 추격

시민후보 장휘국 다크호스로…탁인석·김영수씨도 분주

■쟁점&변수

①민주당 연상 기호 '나번' 주인공은

②광주시장 후보와 '정책 연대' 누가

③1인 8표제 '묻지마 투표' 원인 되나

광주시교육감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누가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기호(나)를 뽑느냐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후보들의 '뽑기'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이름의 순번이 정해지는 만큼 누군가는 민주당을 연상하는 2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민주당 선호도가 높은 광주 유권자의 특성상 민주당 자리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득표율을 올리는 지름길로 통한다.

특히 무조건 민주당 기호의 자리를 찍는 '묻지마 투표'가 일어날 경우 예상치 못한 후보가 당선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3천명 정도의 학교운영위원만으로 치러졌던 교육감 선거가 올해 직선제로 바뀐 탓에 일반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낮고, 학부모를 제외하곤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권자 1명이 8명을 선택하는 '1인 8표제'도 '묻지마 투표'의 한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교육감 후보 중 누군가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와 정책 연대에 나설 경우도 선거판을 요동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교육감 후보들은 광주시장 후보는 물론 자치단체장 후보 등과의 연대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신과 교육 공약 부분에서 코드가 맞는 시장·지자체장 후보와 '연대 패키지'를 통해 인지도를 높여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데다, 시장 후보간의 지지율 경쟁도 치열해 본격적인 '세 합치기'는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를 의식한 듯 양형일 후보 등 일부 광주시장 예비 후보들은 무상급식 확대 등 교육복지 향상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며, 교육감 후보들에게 정책연대를 제안하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 인사 등이 '시민후보'로 추대한 장휘국 광주시교육위원이 실제 선거에서 어느 정도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정당 공천이 배제된 만큼 인물·공약 대결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전개될지도 주목을 받는 대목이다.

지역 정치계의 한 인사는 "현재는 선거 초반인 만큼 교육감 선거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약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선거전이 본격화 되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정원 7명에서 4명으로 줄어

현 교육위원 등 12명 경합

■교육의원 입지자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지방자치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답보상태였던 광주시교육의원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 및 교육행정경력이 10년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된데다, 현 교육위원은 교육경력 유무에 관계없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출마포기를 고려해 왔던 현직 교육위원들도 출마의사를 밝히는 등 선거열기가 서서히 가열되는 분위기다.

다만, 지방자치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공식적인 출마선언은 잠시 미루고 물밑으로 지지세력을 다져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누가 나오나=현재 7명인 정원이 4명으로 절반 가까이 준다. 동·남구 1명, 서·북·광산구에서 각 1명씩 뽑는다. 1선거구(동·남구)에서는 김영목 전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철수 신암초 교장, 손정선 광주교대 교수, 임동호 전 삼도초 교장, 주영길 현 교육위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2선거구(서구)는 전교조 출신인 김선호 광주 효광중 교장과 장관수 전 광주서부교육장의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 3선거구(북구)는 박기훈 현 교육위원과 윤광현 전 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 임종대 동강대 교수가 사실상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4선거구(광산구)는 박인화 전 운남초 교장과 오덕렬 전 광주고 교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3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윤광현 전 교원정책과장은 "그동안 쌓은 교육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교육의원의 직선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명의 현 교육위원 중에선 박기훈, 주영길 위원만이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윤봉근 전 위원은 광산구청장으로, 장휘국, 서재의 위원은 각 교육감과 시의원으로 진로를 바꿨다.

반면 이승연, 문동주, 전원범 위원 등은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의원 입지자

선거구	이름	경력
1	김영목(64)	전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철수(61)	신안초교장
	손정선(61)	광주교대 교수
	임동호(66)	전 삼도초 교장
	주영길(66)	광주시 교육위원
2	김선호(63)	효광중 교장
	장관수(64)	전 서부교육장
3	박기훈(69)	광주시 교육위원
	윤광현(63)	전 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
	임종대(62)	광주대 교수
4	박인화(63)	전 운남초 교장
	오덕렬(65)	전 광주고 교장

◇약한 관심도, 넓은 선거구는 변수=광주지역 유권자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교육정책을 이끌어갈 인물에 대한 관심도는 아직까지 미미하다.

최근 실시된 시 교육감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선거가 4개월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 후보보다도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교육의원 후보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이를 표로 직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선거구가 국회의원보다 넓은데도, 공천제에서 배제돼 정당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만큼 '나홀로'조직을 꾸리고 선거전에 돌입해야 하는 어려움도 안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원 후보들은 교육감 후보와 선거 연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상황에서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원내 제2당인 민주당을 연상하게 하는 기호(나번)를 뽑는 후보의 당선이 가장 유력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일단 출마한 뒤 민주당 기호를 뽑지 못할 경우 출마를 접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교육의원 출마를 저울중인 한 인사는 "소속 정당이 없는 교육의원은 혼자의 힘으로 선거전을 치러야하고, 교육의원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도 매우 낮아 선거운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주당 기호를 뽑지 못하면 출마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